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박 인 숙
진주보건대학교

In-Sook Park
Nurse department,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198명의 간호대학생이었다.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 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 si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인간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0.0%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하는 시기이다[1]. 간호대학생의 경우 국민의 건강 회복, 고통경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간호 목적을 책임지는 예비 간호인으로서 이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경험하여 자신의 사명을 찾는 시기이다. 임상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인지하게 하므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으며[2], 간호대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아한다고 하였다[3]. 또한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4]. 이에 본 연구에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예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 대상자는 K도 J시 소재 J대학교 간호대학생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 총 2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이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2명을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198(99.0%)이었다. 이는 G* power 3.1 프로그램[5]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을 위한 표본크기 산출의 결과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0, 독립 변인 수 5로 계산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05명을 충족한다.

2. 연구 도구

2.1. 공감능력

공감능력 척도는 Davis[6]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RI)검사, Bayant[7]의 정서공감능력 척도를 박성희[8]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총 30문항 2개 하위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고 본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 .90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 ch's a .80이었다.

2.2.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Buhrmester[9]의 대인관계 유

능성 질문지(ICQ)를 Han과 Lee[10]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총 31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고 본다. Han과 Lee [10]의 신뢰도는 Cronbach's a .84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a .86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3세가 50명(25.3%),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이 각 50명(25.3%), 종교는 있음이 150명(75.8%), 건강상태는 좋음 이상 96명(48.5%), 대인관계는 좋음 이상 90명(45.5%),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155명(78.3%),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176명(88.9%), 희망진로는 병원취업이 175명(88.4%), 가정 생활정도는 보통이 177명(89.4%), 거주상태는 자가가 154명(77.8%)가 많았다.

2.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 상관관계 분석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r=.517,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1].

표 1.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 상관관계

	1	2	3
1.공감능력	1		
2.대인관계 유능성	.517*	1	

*p<.05, **p<.01, ***p<.001

3.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VIF값은 1.21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03으로 값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30.0%(R2= .300)이고, 모형은 유의 수준 5%에서 대인관계 유능성(F=.50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t=.710,p〈.001)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수	공감능력					
	β	t	P	R2	Adjusted R2	F/(p)
대인관계 유능성	.045	.710	.000	.300	.290	.505 (.000)

Ⅳ. 논의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를 보여주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서 공감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1]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삼고자 실시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도 J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거나 반복 연구 및 심층면접으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간호 교육의 발전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이 인간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유지수 외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8권, 제1호, pp. 410-419, 2008.

[2] Ward J, Cody J, Schaal M and Hojat M.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8, No. 1, pp. 34-40, 2012.

[3] Rasheed SP. “Self-Awareness as a Thera- peutic Tool for Nurse/Cli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8, No. 1, pp.211, 2015.

[4] Saaranen T, Vaajoki A, Kellomäi M and Hyväinen M. “The simulation method in learn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 -tence experiences of masters' degree stu- dents of health sciences”. Nurse Educ Today, Vol. 35, No. 2, pp.8-13, 2015.

[5]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pp.1149-1160, 2009.